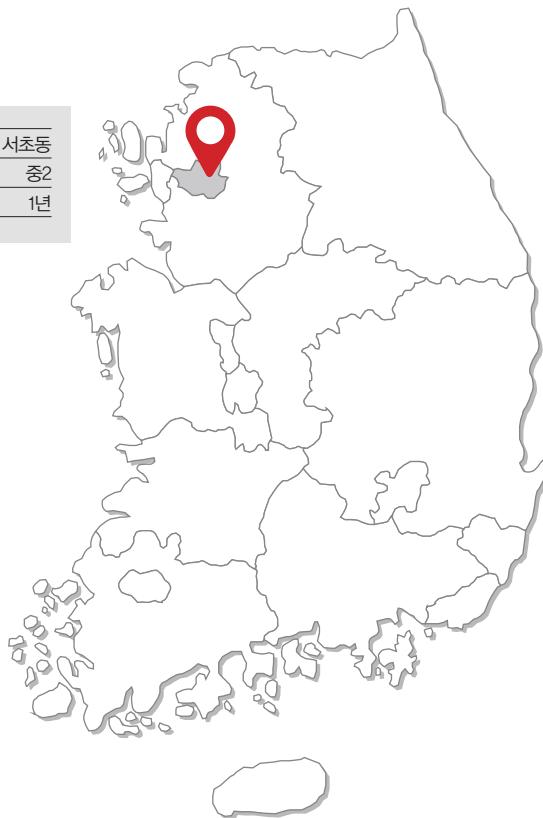


READER'S PAGE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거주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녀	중2
구독 기간	1년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_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윤채린
“사회적 메시지 전달하는
방송 제작자 되고 싶어요”

“사례가 구체적이고 생생하더라고요. 고교 생활을 미리 엿 볼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 연계 적합서 지리② 〈통합사회〉 세계사와 평화

“인문 계열 학과 진학을 생각 중인데 많이 읽고 생각해야겠죠. 교과 연계 도서를 통해 책을 다양하게 소개해줘 좋더라고요.”

“독서부터 수시 합격생까지 구체적 사례로 대입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내일교육〉을 구독 중인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발견했어요. 빌려서 읽어봤는데 기사가 좋고 입시를 잘 모르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했죠.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중2인 아이는 인문 계열 학과 진학을 고려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야겠죠. 책 소개 기사가 있어서 반가웠어요. 게다가 교과 연계 도서인 만큼 고교 학습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또 선배들을 인터뷰한 수시 합격생 기사는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더 생생했습니다. 앞으로 고교에 진학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데 입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사도 눈에 들어오고요. 아직 입시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다 되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읽다 보니 예전보다는 한결 낫더라고요. 점점 더 익숙해지리라 생각해요.

〈내일교육〉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최근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개편안의 첫 적용을 받는 중2거든요. 대치동이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 학원에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통합사회〉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능 과목으로 치를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